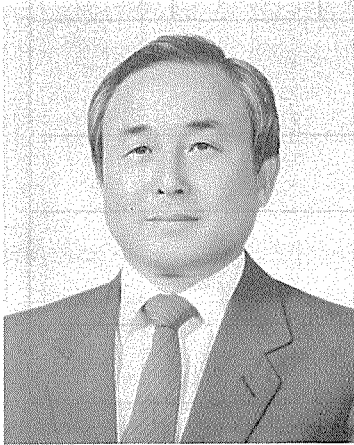


# 중국 방문 인상기

## <한중관계 역사의 현장에서>



이 수 용  
<한양대학교 교수>

-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공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이학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공학박사)
  - 현재, 대한방사선 방어학회총무, 동학회 학술용어 심의위원장, 한국물리학회 평의원, IRPA 회원, Health Physics Society, IEC TC-45 전문위원
- 저서 : 오차론의 5권  
 역서 : 방사선계측의 7권  
 논문 : 방사선방어체계용 선량당량지수 및 선량분포 결정의 26편

중국이 그 대륙의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지 40여년, 이제 그 걸개가 서서히 풀리면서 국제무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80년대 중반까지도 국교가 없는 우리와는 제 3국을 통한 간접교역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발전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내 좁은 소견에는 중국은 항상 우리와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상반된 이해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가 드문 전율할 사건들을 우리민족에게 안겨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가까운듯 먼 나라였다.

1950년 6. 25가 발발하자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이름하에 지원군을 북에 파병(50. 10. 19)시키므로써 휴전이 성립될 때(53. 7. 27)까지 우리와는 교전국(交戰國)이 되었던 관계로 국제무대에서는 적대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웃이었다.

그러한 한중관계는 오늘날의 한-중-소-일을 중심으로한 동북아(東北亞)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더욱 변모할 수 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도 이제는 우리의 북방외교의 주요 대상국으로 부각되어 새로운 역사의 마당(場)이 시작되는 중이니 어찌 서로의 변화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금년 여름의 유난히도 긴 장마가 걷힌 후인 팔월 중순(90. 8. 11)에 중국을 거쳐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한양대학교 교수 중국연수단 제2진과 함께 11박 12일 동안 연수경유지(서울-홍콩-상해-북경-(심양)-연길-두만강-연길-용정-백두산(천지)-연길-(심양)-장춘-하얼빈-상해-서울)를 오가는 동안(8. 11~8. 22)에 견문한 것 몇가지를 적어본다.

일행이 김포공항을 떠난지(09:05) 3시간(12:05) 후에 홍콩의 카이탁(啓德)공항에 도착하였다. 자유무역항, 도시형 국제 교역국가인 홍콩은 1997년 6월에 중국에 반환되는 장래 문제로 그런지 국제 도시라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곳이 많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내 관광등으로 8시간을 보내고 저녁(21:40)에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여행객들과 뒤섞여 중국 민항기에 탑승하였다. 밤 늦게 상해 공항 국내선 청사에 도착(23:10)했다. 공항을 나와 호텔로 가는 중에 안내인은 여행시의 주의사항을 요령있게 설명해 주었다. 중국은 체제가 한국과는 다르지만 마음놓고 여행할 수 있 있는 나라이며, 특히 이곳의 식수는 오염도가 심

하여 물이라기 보다는 약이라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니 중국에서는 냉수를 안마시는 것이 이들의 몸에 뻘 생활습관이라고 알려준다. 정말로 물에서는 약취가 풍겼다. 그래서 차(茶)문화가 발달한 중국. 기름기가 많은 중국음식에 냉수는 배탈의 요인이니 주의가 필요한 중국땅에 지금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물과 기름과 같은 의식구조에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에 첫발을 들여 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막 밀려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교통편의 등의 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안내인의 말에서 곧 알게 된다.

중국 여행시 교통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중공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인은 젊은 나이 답지않게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부탁을 한다. 한국에서 무궁화셋 정도인 호텔에 해당되는 이곳 상해의 천마대주점(天馬大酒店)에서 첫 밤을 보냈다.

일행은 실제로 이번 여행중에 중국 음식점과 같은 명칭의 호텔에서 보내게 되는 데 북경(北京)과 상해(上海)에서는 『酒店』, 장춘(長春)과 도문에서는 『賓館』, 하얼빈에서는 『飯店』 등의 꼬리(?)가 붙은 호텔시설은 최근에 지은 때문인지 모두가 고급호텔 수준이었다.

이튿날(8월 12일)은 상해 교외의 광활한 농촌풍경을 보면서 정원으로 유명한 소주(蘇州)에 도착했다. 옛 이름이 고소(姑蘇)인 이 도시는 역사가 깊은 만큼이나 들리는 이야기도 많았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근원지로, 쌀, 감자, 차, 물고기가 양산되어 어미지향(魚米之鄉)으로도 불리었다.

호구(虎丘)에서는 통칭 호구탑(虎丘塔)이라 불리우는 8각 7층 운암사탑(雲岩寺塔)은 피사의 사탑(寺塔)인양 약간 기운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다. 높이가 47.5 m나 되는 이 벽돌탑은 961년에 완성된 것으로 소주에 현존

하는 7기(基)의 송대(宋代)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 한다.

불거리가 많은 이곳에서 한산사(寒山寺)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한번 치면 10년씩 젊어진다고 하는 종루가 있는 이 절의 입구 매표소의 누런 벽의 한산사(寒山寺)란 석자 외엔 아무런 표시도 없다. 맞은편 운하의 구름다리 밑으로 유유히 통과하는 소형 배 한척, 그 위에 탄 내외인 듯한 사람들의 반가운 손짓이 그렇게 정겹게 보일 수가 없었다.

사찰 경내에 있는 당대(唐代)의 시인 장계(張繼)의

달 떨어지고 새 지저귀고/  
서리 하늘에 가득찬데/  
(月落鳥啼霜滿天…)

으로 시작되는 풍교야박(楓橋夜泊)의 시비(詩碑)외엔 시경(詩情)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곤 별로 없다. 풍교는 지금도 한산사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석조교(石造橋)이다. 이 한산사는 규모가 큰 절인데 반해서 스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욱 한산(閑散)해 보여서 정겨운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 절도 남북조 시대에 창건된 후 여러번의 전란으로 소실되어 청의 말엽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건물의 퇴색된 단청등의 보수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보존상태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고찰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옛부터 강남(江南)의 정원(庭園)은 천하제일(天下第一), 소주(蘇州)의 정원은 강남제일(江南第一)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 대충 본 이곳의 정원중 유원(留園)은 경관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도 뛰어났고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풍기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4년전에 가본적이 있는 남해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이 문득 떠올랐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가 이곳을 선계(仙界)로 삼고 거거서

시조문학(時調文學)의 정화요 그의 문학의 대표작인 어부사시사(漁夫四時詞)를 비롯한 많은 시작(詩作)을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히 우리 정원(庭園)예술의 극치였던 그곳의 자연 경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였다. 그래도 거기서는 「어부사시사」(漁夫四時詞) 40수(首) 중의 서사(序詞)의 마지막인

하늘 땅 넓었어도 바다는 그대로가/  
가없이 너른 물결이 비단처럼  
걸쳐 있다.

는 대목 등이 주는 시정(詩情)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길손에게 주어진 충분한 여유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보길도 부용동의 세연지(洗然池)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를 신속히 복원하여 문학사의 고장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이 지면을 빌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가히 필자의 생각만은 아니리라.

상해로 돌아온다. 상해는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인 노신(魯迅)과 같은 작가를 탄생시켜 문학(文學)의 발달에 기여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화대혁명(1966. 5-1976. 10)의 발상지로서 중국 문화를 몇십년은 후퇴시켰다고 하는 두 얼굴을 지닌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겐 오히려 홍구공원(紅口公園, 지금은 노신공원임)의 애국지사 윤봉길(尹奉吉), 상해임시정부와 백범(白凡) 김구(金九) 주석등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활동무대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일행은 저녁 늦은 시간에 양자강(陽子江) 하류로부터 10 km 상류에 위치한 황포강(黃浦江)변과 변화가인 남경로(南京路)에서의 자유롭고 활달한 이곳 시민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폐쇄적일 것이라 믿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이들의 한 단면을 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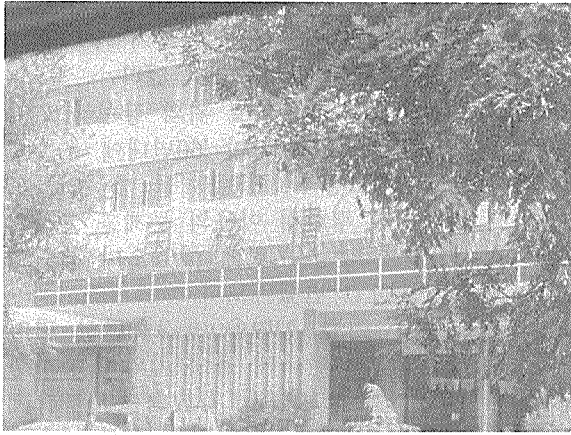
바쁜 일정에 따라 이동해야만 했던 일행이 이곳 우리의 애국선열들의 충정과 우국의 숨결이 깃든 임시정부의 옛청사를 방문한 것은 귀국하던 마지막날(8월 22일) 오전이었다. 상해시 마당로(馬當路)보경리 306의 4호가 바로 그곳이다. 고색(古色)이 찬란한 상해 중심지의 여러 곳과는 달리 입구부터 초라하게 보였다. 당시의 독립투사들이 좌절하지 않고 최후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분들의 우국충절에 새삼 옷깃을 여미며 숙연해졌다.

북경에 도착(8월 13일)한 일행은 상해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공항에 마련된 삼성과 금성의 짐수레에 짐을 싣고 나왔다. 성공하는 홍보전략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믿게된다. 북경도심에 이르자 너무 크다 할 정도의 번호판을 단 차량들과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 대열의 홍수, 그리고 버스도 전차도 아닌 우리의 시내버스를 두대 연결시킨 것과 같은 전동굴절 버스가 눈에 띄는 첫 풍물(風物)이었다.

중국을 굴리는 것은 자전거 바퀴란 말이 실감있게 느껴졌다. 북경에 있는 유훈주점(裕龍酒店)에 체류(8. 13-8. 16)하는 동안 중국에서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텔레비전에 비쳐져 낯설지 않은 천안문광장, 중국현대사에서 봉건주의 타파와 과학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북경대학(8월 15일), 자금성(紫禁城), 등을 둘러보고 우선 그 규모가 하나 같이 커서 일행을 놀라게 했다.

북경 서북쪽 70 km 정도 되는 곳의 팔달령의 먼발치에서 만리장성을 바라보고 나는 “얼핏 보기에 백룡이 한 마리가 꿈틀 대면서 험산 준령을 기어오르는 듯 힘있게 보이는 장성(長城)”이라고 감탄해서 표현한 바 있거니와 내가 장성에 올라가(我登上了長城)보아도 역시 끝이간데 없이 뻗어 있었고, 이는 분명코 인류 최대의 축조물이라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만리장성의 최근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북경(北京)에 있는 중국 핵 정보 중심(中國核情報中心) 건물, 이 옆에 원자능 출판부(原子能 出版部)가 있다.

지의 통설인 2400 km(6000리) 보다 1040 km나 더 긴 3440 km(8600리) 보고된 바 있다. 이곳을 떠나 돌아오다 남구진에서 왼쪽으로 꺾어들면 명의 13능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는 명나라 역대의 황제 17명 중 13명의 능묘가 있다. 물론 황후나 총비들도 함께, 만리장성과 북경 사이의 이 골짜기에 묻혔던 것이다.

푹푹찌는 한 여름의 폭염(35°C)과 바깥 세상과 잠시 하직(?)한 나는 지하행(地下行)을 결행한다. 인파에 휩쓸려 가면서 지하 87 m 깊숙한 곳에 닿으니 그곳이 바로 명나라 제 14대 황제 신종만력제(神宗萬曆帝)의 무덤이었다. 그는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때에 장수 이여송(李如松)을, 정유재란(丁酉倭亂)(1597)때에는 진린(陣麟)을 조선에 파견해 주었다.

이 능이 발굴된 것은 1957년이고, 이 일대에 지하궁전이 나타나서 유명해졌다는데 이 궁전은 큰 돌들을 쌓아놓고 앞, 가운데, 뒤의 3전 5실로 나뉘어져 각 실은 아주 두꺼운 대리석 문으로 막혀 있었고 원형이 잘 보존되었다.

이 대리석 벽들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흘러

내렸고 매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내뿜는 열기와 지하에서의 습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한 영구 보존이 어려우리라 여겨졌다.

8월 15일에는 자금성(紫禁城)과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황실의 여름 별장인 이궁(離宮) 이화원(頤和園)을 둘러보았다.

이화원은 290만 m<sup>2</sup>의 면적을 가진 북경 최대의 공원으로 그 북쪽에 인공의 만수산(萬壽山)과 남쪽의 곤명호(昆明湖), 서호(西湖) 및 남호(南湖)가 펼쳐진다. 공원 부지의 3/4은 호수가 차지하고 있다. 만수산 기슭까지 점점이 산재해 있는 누각, 전당, 다리, 문, 긴 회랑 등의 건조물과 호수의 구성이 돋보이는 정원이다.

만수산 허리에 있는 이화원의 중심건물인 20 m 대리석 기단 위에 6각형 4층으로 세워진 높이 41 m의 불향각(佛香閣), 여기서 보는 풍경이 불만한데 서쪽으로 향산, 동쪽으로 북경대학이 내려다 보인다.

이번 연수기간 중에는 북경대학(8월 15일) 연변대학(8월 19일) 및 흑룡강성대학(8월 21일)을 각각 방문하였다. 북경대학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최근 몇년 동안 대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정상으로 진입된 대학이 천안문사태('89. 6)의 중심대학이 되었고, 또한, 반체제 천체물리학자인 방려지(方勵之)부부의 미국으로의 망명(1990. 6. 25)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하고 생각하게 한다.

1949년에 설립된 연변대학의 역사는 이 대학의 40년사를 전시한 교내역사 자료실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다. 이층 전시실 벽들에는 이 대학의 역사를 시각적인 효과를 곁들여 거의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시실 맞은편 복도는 마루바닥인 상태였다.

1952년부터 조선어문과 역사학과의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이 대학은 중국내 조선족 중고등학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최대 최고의 한국학 연구기관으로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중국의 한국어 연구 성과는 주로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중국대륙에서의 우리말 원형보존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 대학의 한 당국자는 그간의 몇가지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교량역을 하는데 더욱 공헌하겠다고 구상을 펴 령하고 있었다.

지금 연변에서는 중국의 국가핵공업부 제 2 연구실이 기술과 장치를 책임지고, 또한 연변상업과학 연구소가 공장시설과 인력을 제공하는 협조하에 금년말까지 「핵이동식  $\gamma$  복사장치」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중국에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라 하는바 170만원(한화 약 2억7천200만원)자금이 드는 국가의 집중 지원사업이라 한다.

이 장치가 연변에 설치되는 원인에 대해 제2 연구설계원 왕혜련 고급 공정사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특산물이 많고 수출입 식료 품 및 부식물이 많은 적소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 설치를 위해 중국 동위원소 및 복사업 종협회, 위생부공업시험소, 중앙계량과학원이 관련되고 있으며 이미 14일간(8월 9일까지) 이들 기관들에서는 연변 복사가공기술 강습 반을 열어 이 장치의 응용에 관한 기초를 이미 닦았다고 한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환경 방사선(環境放射線)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주로 국무원(國務院) 소속 국가환경 보호국(國家環境保護局), 핵공업부(核工業部) 및 위생부(衛生部) 등 3개 부문(部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방사선방어(放射線防禦)를 복사방호(輻射防護)로 표현하고 있었고 『연변일보』(8월 12일자)에는 감마선 처리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었다.

독자를 위한 「소자료」란에서도 이 장치를 일컬어 「이동하면서  $\gamma$  방사선을 복사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감사선원과 또한, 핵기술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보기가 바로 위의 장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미 '60년대에 수폭실험으로 세계를 경악시켰던 이들 중국인들도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세월도 어지간히 변하긴 변했나보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몇일 후에 하얼빈에서 만나게 될 중국의 흑룡강성 방사핵의학연구소(黑龍江省放射核醫學研究所)에 근무하시는 핵과학자이신 김시협(金時俠), 양의성(梁義成) 내외분을 만나 중국에서의 방사선보건물리(放射線保健物理) 활동에 관해 상세히 듣기를 기대하였다. 이들 두 분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KARP)의 '90년도 가을 총회(11월 8일)에 초청연사로 초청받은 분들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중국의 도시들에서 본 곳곳의 자유시장의 성시(盛市)와 뒤늦은 경공업에로의 전환의 몸부림, 충분히 한국을 넘볼 수 있는 중국상품들을 보면서 이들이 소련 및 기타 공산권 나라에서와 같이 생필품이 결핍되어 허덕이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경제개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와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대륙인들로만 여겨짐은 웬 일일까?

지금 남북간에 양다리를 걸친 이들이지만 중국의 과거사를 보고 이들이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들의 개방경제 가속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에 우리가 너무 급히 뛰어들어 우선 제거해야 할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채 너무 큰 기대에 부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인가. 지면관계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연변지방에서의 일까지로 끝을 맺는다.